

수묵으로 물드는 예향 남도의 가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9월 1일~10월 31일

19개국 190여 작가 350여점 전시

황실유묵·현대수묵 등 감상

‘물드는 산, 멈춰선 물-송고한 조화 속에서’.

올해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주제는 한편의 짙막한 시와 같다. ‘산이 물들고, 물이 멈춰서’라는 표현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산과 물로 대변되는 자연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며 스며드는 관계로 본다.

수묵화에 담긴 산과 물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하고 묵향의 미와 향기를 세계에 알리는 전남수묵국제비엔날레 개막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오는 9월 1일 개막식을

갖고 2개월간의 장정에 돌입한다.

사무국은 이번 수묵비엔날레를 매개로 전통 수묵이 K컬처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19개국 190여 명의 작가 작품 350여 점이 전시되며, 대학생과 어린이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매개로 전통수묵의 발전과 계승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화의 수묵 정신을 계승한 수작으로 평가받는 백남준의 ‘머리를 위한 선’도 선보인다. 이 작품은 1961년 현대음악가 슈톡하우젠의 영상 ‘오리기날레’에서 처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감독을 맡게 된 이진수 총감독은 “이번 주제는 정중동(靜中動), 동중정(動中靜)을 모티브로 고요함 속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양의 미학을 상징하고 있다”며 “서구미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다의적인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한 “종이와 먹 그리고 물로 대변되는 우리 전통 산수화가 지닌 따스함이 관객들의 지친 심신을 회복하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비엔날레 명성에 맞는 성공적인 행사로 세계 속에 전남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전시관은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운영된다.

먼저 1전시관인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채로운 전시가 관람객을 맞는다. ‘산-물, 바람-빛’을 주제로 대표 중견 수묵작가와 세계적 해외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현대수묵 I’이 눈길을 끈다. 수묵의 세계화를 꾀하는 전시도 있다. ‘목포는 항구

다’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제지되는 16개국 작가가 참여하는 교류전이다.

특히 황실특별관을 설치해 구한말의 황실유묵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여 역사 속 우리의 수묵화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대한제국 수묵유산전’에서는 흥선대원군을 비롯해 고종, 순종, 의친왕 등의 수묵작품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전시관 노작봉 예술공원 미술관에서는 중견 작가와 뉴에브리 작가들의 그림을 만난다. ‘풍경은 같은데 산수가 다르다’를 주제로 수묵의 재료성과 현대성에 초점을 맞췄다. 재료의 물성에 따라 천차만화하는 작품을 토대로 수묵의 색다른 미를 감상할 수 있다.

MZ세대 관심도를 견인하기 위해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에서도 전시가 마련된다. 3전시관 주제는 ‘미래는 수묵시대’. 한국화 전공 대학생 30여 명의 작품을 전시하는 ‘대학 수묵제’와 전국 초등학생 60여 명의 작품을 전시하는 ‘어린이 수묵제’는 수묵화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다.

진도에서도 다양한 전시가 관람객을 맞는다. 남도전통미술관(4-6전시관)에서는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화 작가들이 ‘운림, 구림이 스미는 검은 숲’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운림산방



석파 이희용 작 ‘괴석묵란도’

물드는 산, 멈춰선 물

(5전시관)에서는 수묵 대가들의 산수화와 미디어 아티스트 6인의 인터랙티브형 전시가 ‘화담/지자 우수 인자요산’을 주제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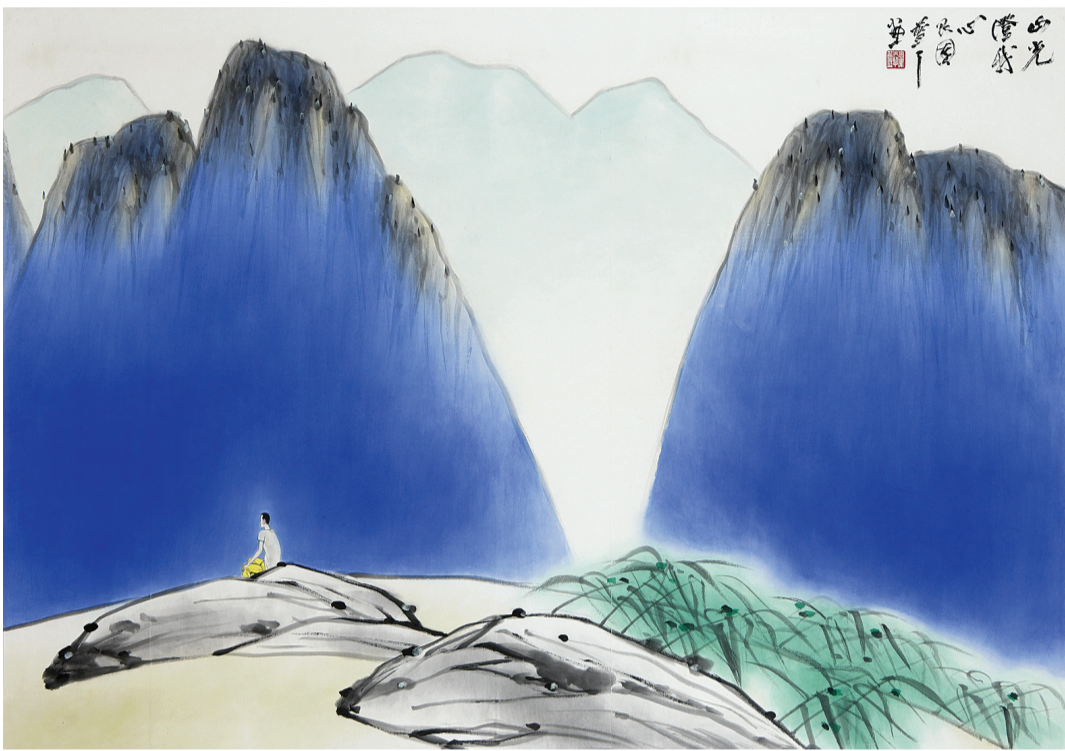
진도향토문화회관(6전시관)은 영호남 작가 교류전을 ‘묵연’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 외에도 특별전시관 3개관(광양도립미술관, 순천만국제정원박물관, 해남 대흥사)과 14개 시·군 18개소에서 시·군 기념전이 열린다.

특히 도립미술관에서는 10월까지 ‘이건희 컬렉션 한국현대미술 특별전: 조우’를 개최해 수묵과 현대미술의 아름다움과 특별함, 조화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개막식은 오는 9월 1일(오후 5시) 국내외 각계 인사,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 문화예술회관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전남도립국악단의 식전공연, 수묵패션쇼, 홍보대사 송기인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노수 작 ‘산광징아심’

‘명월청풍’ 쾌청함과 흥취 담은 국악 파노라마

19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우리 명월청풍의 쾌청함과 흥취를 담은 국악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 이하 국악원)은 기획공연 ‘한여름의 파노라마’를 오는 19일(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선보인다. 작년 ‘바다’를 주제로 선보였던 공연에 이어 올해는 ‘산’을 매개로 우리 국악관현악과 문화작품의 접점을 표현한다는 계획이다.

정철의 ‘청산별곡’을 모티브 삼은 국악관현악 ‘살아리 살아리랏다’와 산에 부는 청풍을 그려내는 생활 협주곡 ‘풍향’이 펼쳐진다. 이어 가곡 ‘청산에 살리라’와 ‘그리운 금강산’을 선보이는데 테너 김백호의 목소리가 어우러질 예정이다.

또 고려음악의 신비함을 담아내는 ‘청산’,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을 소재로 한 ‘경기 금강산타령’, ‘남도 금강산타령’도 준비돼 있다.

심인택 예술감독은 “음악을 감상하며 산 위에서



국악관현악 공연을 선보이는 단원들의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내려다보는 경치와 청풍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의 이미지와 국악관현악의 흥취가 한여름 무더위를 저만치 밀어내 잠시나마 시원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자세한 내용은 국악원 장악과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심리적 줄타기 ‘낙관과 낙담 사이’

남석우 개인전, 23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오늘의 현대인들은 고독하다. 외견상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심리적으로는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이들이 많다.

남석우 작가의 작품 속에는 그런 현대인들의 특징이 투영돼 있다. 얼굴이 가려지거나 또는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은 소속에 대한 불안을 드러낸다.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외롭고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본질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석우 작가의 개인전이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전시의 주제는 ‘낙관과 낙담 사이’.

지난해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남 작가는 그동안 대상을 관찰하고 이를 자신만의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작품의 명칭이며 주제이기도 한 ‘낙관과 낙담 사이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심리적 줄타기’를 하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초점화한다. 낙관과 낙담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것이 발현하는 효과는 천양지차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법도 하다.

작가는 관찰자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며 수정하고 덧칠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완성한다. 작품 속 인물은 원가에 집중하고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뒤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큰 날개를 가진 새다. 두 대상의



‘낙관과 낙담사이’

공통점은 얼굴이 없다는 점이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자나, 그 바라보는 자를 바라보는 대상 또한 얼굴이 없어 독특한 분위기를 발한다. 작가는 그렇게 익명성 속에 묻혀 사는 인간들의 내면에 깃든 심리적 모습을 은유적으로 풀어낸다.

남 작가는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주인공의 얼굴에 자신을 투영해보며 함께 공감하고 소통해보길 바란다”며 “더러는 ‘낙관’과 ‘낙담’ 사이에서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 ‘월간미술대상 Top 10’ 전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이 제19회 ‘월간미술대상 Top 10’ 전시로 선정됐다.

지난 4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선보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 ‘세대 간 기후변화 재판소(CICC): 멸종 전경’은 동시대 화두인 기후변화와 위기 등을 ‘행동주의 예술’로 구현, 호평을 받았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이 제19회 ‘월간미술대상 Top 10’ 전시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월간미술대상 Top 10’은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 및 심의위원들이 1년 간 국내 국공립미술관을 비롯해 사립 및 소규모 공간의 전시를 둘러보고 선정했다. 지난 1996년 첫 개최된 ‘월간미술대상 Top 10’은 미술계 담론에 기여한 전시기관 및 기획자, 저술가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2년 제17회까지 열렸다가 2022년 재개최됐다.

국가와 기업이 공모해 과거, 현재, 미래에 저지르는 기후 범죄를 기소하는 대안 법정인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는 작가, 학자, 법률가이자 활동가인 라다 드수자와 프로파간다 연구자이자 아티스트인 요나스 스탈이 공동 설립했다. 제14회 광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

<광주비엔날레 제공>

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열린 증거 재판 퍼포먼스에서는 사회 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한국의 맥락에서 기후 범죄에 공헌하는 방식에 대해 증언했다.

조주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 큐레이터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이 국가 간 경

계, 경쟁의 논리가 아닌, ‘행성적 위기’를 인식하도록 촉진한 면이 크다”며 “인간 너머의 공동체를 위한 연대와 열린 포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준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에 감사を 전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OTT 드라마 ‘밤이 되었습니다’ 광주CGI서 촬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17일 웹드라마 ‘밤이 되었습니다(감독 임대웅)’가 광주CGI센터와 광주실감콘텐츠즈(GCC)에서 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CGI센터 종합촬영스튜디오와 광주실감콘텐츠즈 VX스튜디오 등에서 촬영 중인 ‘밤이 되었습니다’는 수련원에 고립된 고등학생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재인과 김우석, 최예민, 차우민, 안지호, 정소리 등 젊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제작사인 ㈜이오엔터테인먼트는 LG유플러스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 ‘스튜디오X+U’와 공동으

로 기획, 제작 중이며, 지난 4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OTT플랫폼 콘텐츠 제작지원’ 협약을 통해 광주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됐다.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드라마 촬영은 전체 분량 중 50% 이상이 광주에서 촬영된다. 광주실감콘텐츠즈의 VX스튜디오 가상 프로덕션(VP)장비를 활용한 실내 스튜디오 촬영 외에 광주 곳곳에서 야외 촬영이 진행된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광주실감콘텐츠즈를 기반으로 영상콘텐츠 발굴·제작·유통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첨단영상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